

## 헤-겔辨證法과 맑스辨證法과의 關係 (三)

헤-겔과 唯物 辨證法-(□)

쎬-쎬링

金亨後

一切의 自然은 抽象的으로 思惟하는 사람에게 잇서는 論理的 抽象을 感性的 形式에 잇서 反證한 것에 不過하다. 『여기까지의 (즉 論理學에 잇서) 自然은 思惟하는 사람에게 對하여 隱蔽된 謎惑과 가튼 形式에 잇서 絶對理念 抽象을 表象하는 것이었스나 그것과 同□으로 今日까지에 思惟하는 사람은 自然을 自己로부터 解放하였다. 그리하여 現實 가운데 이 抽象的 自然, 自然의 抽象만을 解放하였다. 가장 思惟하는 사람은 이 抽象的 自然이 思惟의 他在이며 抽象的 思惟와 다른 現實的인 쎬는 直觀된 自然인 것을 確信하고 잇다. 或은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抽象的으로 思惟하는 사람은 自然을 直觀할 쎬에는 아래의 것을 알게 된다. 즉 그는 存在를 (神的 辨證法에 잇서 決코 現實性을 熱視하지 안흔 自己 滿足的 勞作의 純産出로서의) 無로부터 純粹抽象으로부터 作出的 것으로 空想하는 것이나 그 存在가 었던 自然現象의 抽象에 不外한 것을 아는 것이다. 헤-겔의 論理學에 對한 맑스의 批判은 形式主義 及 抽象的 思惟에 對한 批判으로서 行하였다. 맑스는 헤-겔의 抽象的 論理學에 具體的 쎬는 實在的 論理學을 對置하였다. 이 點에 맑스 辨證法과 헤-겔 辨證法の 根本的 相異가 잇다. 맑스는 헤-겔을 □□하여 辨證法을 發展하였나 너무 그것은 새로운 基礎에 基因하여 行하여진 것이다.

그러타고 하면 맑스가 헤-겔 辨證法을 嚴正히 批判하였다고하여 만흔 사람들이 企關하는 것과 가티 헤-겔 辨證法을 單히 拒絶하는 것은 아주 不當하다. 헤-겔의 論理學은 우리에게 잇서는 唯物論的 辨證法을 發展식히며 構成하기 爲한 出發點이 되지 안흐면 아니 된다. 이 點은 맑스의 말한 바와 가티 『辨證法은 헤-겔의 손에서 神秘化 된 것이나 그러타고 하여서 이것은 아무도 아닌 헤-겔 그 사람의 辨證法の 一般的 運動形態의 □□엿는 意識的 圖形을 示한 것을 □毫도 損傷하는 것이 아니다』

맑스 主義와 헤-겔의 立場을 달리하는 第二의 問題는 思惟와 存在와의 關係 問題이다. 헤-겔에 잇서는 眞의 實在는 概念, 或은 理念이다. 그러므로

그의 論理學은 眞인 것 自身이 論理學의 結末에 到來하도록 構成되어 있다. 有는 眞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有의 □□되는 本質에 依하여 止揚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本質의 方面은 概念에 依하여 止揚되는 것이나 이 概念은 本質보다도 一 □眞인 것으로서 自己를 示顯한다. 世界는 그 發展의 結末에 잇서 自己의 眞理와 現實性을 示顯하며 그리하여 그 때에 自己의 本性이 完全히 暴露되는 것 가티 □聞하여 간다. 그런데 이리케 理念을 □□過程의 結末에 잇서 眞의 實在性으로서 自己를 示顯할 수가 잇스며 그리하여 그 □ □ 그것에 잇서는 世界와 眞의 本質이 되어 잇게 된다. 따라서 또 有, 本質 等과의 모든 □□는 □□□多의 形式을 일운 바 □□한 모든 概念의 外□ 卽 그것의 外的 表現 □□에 不過한 것이다. 그리하여 最後의 時□가 되어오면 概念은 □集한 것 外□를 버서 버리고 그 모든 純粹性에 잇서 또 그와 同時에 從前의 모든 內容에 依하여 □□하게 된 그 모든 直觀性에 잇서 우리의 압해 나타나는 것이다.